



영산강 승촌보 명품 조명 22일 개방 행사를 앞두고 야간 경관조명이 커지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 영산강 승촌보(淸) 전경. 나주평야의 주 산물인 나주쌀과 영산강 주변에서 서식하는 물새알을 기본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미지를 연출한 승촌보 5개 기둥 위에 설치된 조명은 계절별로 바뀐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22일 승촌보 개방행사를 개최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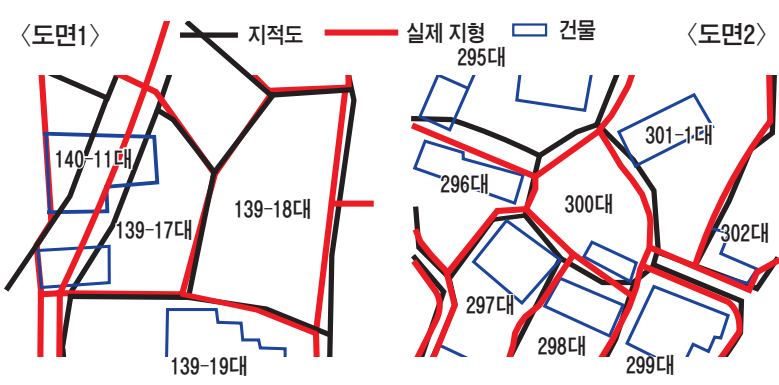
광주시 광산구 하산동 침산마을 513필지 측량해 보니

지적도와 일치한 땅 한곳도 없어

일제때 만든 엉터리 지적도...재산권 분쟁 불씨

광주시 광산구 하산동 침산마을 A씨는 대지 140-11번과 139-17번을 소유하고 있다. 지번은 다르지만 한 울타리 땅으로, 지적도 면적은 각각 56㎡와 152㎡다. 하지만 지적조사를 다시 한 결과, 140-11번 땅이 130.4㎡로 74.4㎡ 늘어났다. 도로가 새로 나면서 마을을 가로지르던 옛 도로를 흡수한 것이다. A씨는 늘어난 74.4㎡를 지적공부에 올렸다. 흡수한 땅에 대해서는 청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시지가의 52% 수준에서 정산해 정산금을 광산구청에 냈다.<도면1>

대한지적공사 광산지사가 지난해 까지 3년간 광주시 광산구 하산지구(침산마을) 513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들이다. 실측 결과, 이 마을의 땅은 광산구청에서 보관 중인 지적도와 위치·모양이 일치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지적도가 엉터리인 셈이다. <관련기사 3면>



만원이 전산돼야 한다. 최광식 지적공사 광산지사는 “실제 측량 결과와 지적도가 정확히 일치한 것은 한 곳도 없었다”면서 “이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전 국토의 땅 경계를 새로 그려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분쟁 등 사회적 갈등도 심각하다. 특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땅값이 올라 경계문제는 더욱 민감해졌다.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2005년 기준으로 연간 3800억원이나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기수 광주전남본부장은 “그동안 몇 차례 지적도 재작성이 있었지만 일제때 지적도를 베끼는 수준이어서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함평 등 일부지역의 경우 6·25전쟁을 거치면서 지적도가 아예 사라져 토지대장을 토대로 재작성하다보니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초의원 1년반 이병완 前대통령실장

“풀뿌리 자치 의욕 컸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중앙집권 국가네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기초의원으로서 쉽지 않은 변신을 감행한 이병완 광주 서구의회의원이 의정생활 16개월째를 맞았다. ‘상향식 민주주의의 토대를 일궈보겠다’며 먼 발치에서 지켜만 보던 지방자치 무대에 직접 뛰어든 이 의원은 지금 지방행정과 의정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변화의 조짐도 있기는 하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가까이

정지인으로서 첫 걸음인지만 모든 것이 서툰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풀뿌리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에 예속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19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중앙(청와대)에서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를 봐 왔지만, 직접 지방의원을 해보니 지방자치의 효율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너무나 빈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됐지만 아직 무늬만 지방자치다. 여전히 중앙정부에 통제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마다 차별성이 이뤄져야 하지만, 예산과 인력 때문에 중앙 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다가가 주민 친화적인 행정을 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그는 현재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창의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다음 정권이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지방자치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 스스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 의정활동 모두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의원들은 주민과의 친화가 필요하고, 생활 속의 작은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이 모두 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울 들어 열린 회기 중 2~3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의에 참여해 출석률은 만점 수준이다. 반면, 조례안 등 안건 발의는 부진하다. 최근에는 향토역사 발굴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지방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 “총선 출마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기초의원 출마와 당선은 저의 첫 정치이자, 약속이었던 만큼 기초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이름없는 기부천사 보성군에 3억 기탁

“장학금으로 써달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한 독자가 보성군에 3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화제다.

19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재)보성군장학재단 계좌에 2억원이 온라인 송금된 데 이어 지난 18일 추가로 1억원이 입금됐다.

익명을 요구한 이 독자는 군 관계자를 통해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신분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과 연고가 있는 분으로 추측이 되나 신분을 밝히지 않아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며 “도와주시는 분들의 뜻에 부합하도록 인재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장학재단은 현재 60억원의 기금을 적립했으며 목표액 100억원 조성을 위해 군 출연금과 함께 군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모금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本 社 人 事

- ▲ 金 亨 星 논설위원
- ▲ 奇 賢 鎬 문화사업국장 직무대리
- ▲ 김일환 편집국 여론매체부장 (종합편성채널 부장 겸임) <10월 20일자>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행복한 미소 해피니스컨트리클럽 www.happines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고객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해피니스CC가 회원을 모집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의 시간까지 책임지는 해피니스CC회원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모집기간: 2011년 10월 10일 ~ 12월 31일
- 클럽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VIP 정회원	해피정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회금액: 3억 3,000만원 ▶ 회원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1월 1회 18홀 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일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영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 ※ 계약시: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모든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회금액: 1억원 ▶ 회원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선택: C형, D형 중 선택(1) C형) 무기영카드 1매: 그린피 50%할인(연 60회 사용, 1월 1회)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D형)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연,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 계약시: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모든 특전
휴먼 정회원	주중 / 평일 정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회금액: 1억 5,000만원 ▶ 회원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 무기영카드 2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70회 사용, 1월 1회 사용) ※ 계약시: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모든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회금액: 3,300만원(신축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 ▶ 회원특전: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할인

※ VIP회원 및 해피·휴먼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납입

가입문의 Tel 061)330-5000 / Fax 061)300-5009

HAPPINESS **해피니스CC**